

수능 예상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 '에이어의 진리적합성'

이 문장은 다음에서 많이도 배우 된다. 그리고 그 배우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진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헝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기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에이어의 진리적합성' 지문의 (나) 파트에서 '헝크스' 라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 등장했다.



참고로 헝크스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배우 톰 헝크스만 뜰 정도로 철학과 관련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임

그렇다면... 과연 이 유명하지 않은 헝크스를 이렇게까지 답하게 알고있는 한국의 교수는 누가 있을까?



바로 서울대 철학과 강진호 교수님이다. 2021년, 강진호 교수님은 피터 헝크스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학위논문을 발표하셨다.

심지어 한국의 대학교수가 쓴 논문 중, 헝크스와 관련된 논문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강진호 교수님이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 위원이셨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 있다.

Advisor	강진호
Issue Date	2021-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행위 유형 명제 이론 ; 취소된 서술 ; 취소 맥락 ; 중립성 반대 논증 ; 무시된 서술 ; 피터 헝크스 ; act-type theory of propositions ; cancelled predication ; cancellation context ; the argument against neutrality ; ignored predication ; Peter Hanks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인문대학 철학과(서양철학전공), 2021. 2. 강진호.
Abstract	피터 헝크스(Peter Hanks)와 스콧 솜즈(Scott Soames)가 제시한 행위 유형 명제 이론은 인지 주체가 수행한 인지 행위의 유형이 명제라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경우, 란 명제는 화성에 불음을 서술하는 행위의 유형이다. 그런데 헝크스와 솜즈는 서술 행위의 본성을 서로 다르게 본다. 헝크스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지만, 솜즈에 따르면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다. 헝크스는 솜즈를 비판하며 중립성 반대 논증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진리평가가능한 순수한 서술 행위는 비중립적이다.

김승리 알-

이 지문은 전개방식과 글의 양식 등에서 2025 6모 에이어 지문의 느낌이 정말 많이 녹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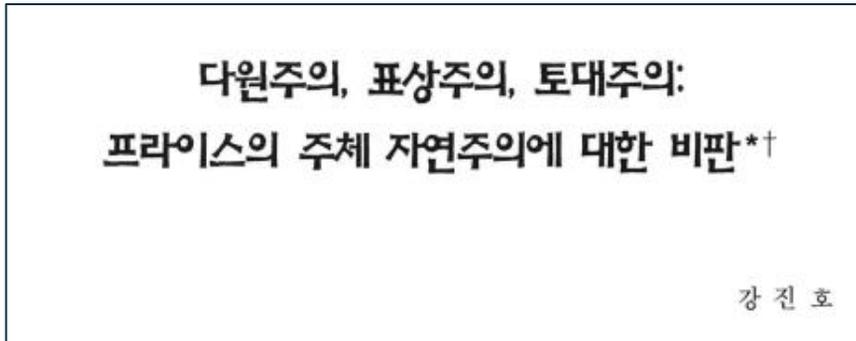


최근에는 ai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심지어 플로리디의 정보철학에서는 ai관련 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소재들도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제 그의 논문 중 논리학 지문의 토대가 될만한 지문을 찾아보자

1) 강진호 (2009), “전기 비트겐슈타인, 논리, 형이상학”, 『철학적 분석』 제20호 (한국분석철학회). 강진호 교수의 논문은 2009년 6월 27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분석철학회 여름학술대회의 발표문을 토대로 한 것이며, 나는

2009년 비트겐슈타인



2011년 프라이스

할 경우 과학적 자연주의의 방법론적 논제마저도 거부해야 하고, 이 경우 그의 주체 자연주의는 맥도웰 식의 자유로운 자연주의로 환원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한다. 필자

2011년 맥도웰

당장에 보이는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 셋이다.

심지어 프랑켄슈타인은 수능특강에 직접 연계가 되어있는 인물이므로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을듯.

하지만... 만약 논리학 지문이 등장하게 된다면..

난 개인적으로 ‘프라이스’이 사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원주의, 표상주의, 토대주의:
프라이스의 주체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

강진호

내가 프라이스를 선정한 이유는 단 하나다. 수능특강 논리학 지문 중 p81의 인식론과 토대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 이 논문이 토대주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와 반대대는 의견을 가지는 프라이스, 근데 모순 있음, 따라서 프라이스 짝깨다. 라는 글이고,
심지어 읽다보면 정말 2025학년도 6모 (나)지문 A파트를 계속 읽는 느낌이 난다.
그리하여 나는 이 논문을 토대로 프라이스와 관련된 논리학 지문이... 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프라이스의 주체 자연주의에 수반논제 딜레마’
지문이 나올 것이다. 한번 쪽 정독해보길 바란다.
참고로 문제는 귀찮아서 안만듬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식론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근거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물음은 지식의 정당화 구조를 탐구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전통적 토대론은 인식의 무한 회귀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기초적 믿음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 기초는 감각적 경험일 수도, 논리적 자명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인식의 출발점이자 정당화의 종착점으로 기능한다. 근대 이후 과학적 자연주의가 부상하면서, 인식의 토대를 자연의 법칙에 따른 설명 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프라이스의 주체 자연주의는 바로 이 흐름을 인식론의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프라이스는 과학적 자연주의의 방법론적 논제, 즉 모든 현상은 자연적 설명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인식 주체인 인간 자신에게까지 적용한다. 그는 인식 행위를 자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과정을 드러내는 핵심 매개라고 본다. 이를 위해 그는 전통적 표상주의 의미론, 즉 언어가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관점을 비판하고,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능적 다원주의 의미론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수동적 장치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작동하며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의 체계이다. 프라이스는 이를 통해 정신, 가치, 규범 같은 비자연적 현상도 과학적으로 기술된 세계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프라이스의 이론은 표상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과학 언어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과학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언어이며, 다른 언어적 실천은 그 기준에 따라 의미가 정렬된다고 본다. 이렇게 과학 언어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언어적 층위 사이에는 위계가 생기고, 과학 언어는 사실상 인식의 ‘언어적 토대’로 작동한다. 문제는 그가 표상주의를 거부했음에도, 자연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과학 언어를 존재론적 기준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모든 비자연적 사실이 자연적 사실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내포하며, 여기서 수반 논제가 도출된다. 수반 논제란 비자연적 사실이 자연적 사실의 변화 없이는 달라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프라이스는 이 관계를 종속의 표현이 아니라 연속성의 원리로 해석하려 했다. 즉, 비자연적 사실은 자연적 사실 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상이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반 논제는 그의 체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온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신적·규범적 현상은 자연적 사실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언어의 기능적 다양성은 과학 언어의 구조 속으로 흡수된다. 그 결과 의미의 다원성은 약화되고, 주체 자연주의는 다시 표상주의적 구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리게 된다. 반대로 수반 논제를 거부하면, 과학적 자연주의의 방법론적 전제, 즉 자연적 설명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프라이스의 입장은 맥도웰의 자유로운 자연주의, 즉 규범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구분하면서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관점에 가까워진다. 그는 자연주의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규범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그 두 목표는 서로를 제약한다.

결국 프라이스의 주체 자연주의는 토대를 부정하면서도 토대 위에 서 있는 모순적 구조를 드러낸다. 그는 인식의 자연화를 추구했지만, 과학 언어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언어적 토대주의를 피하지 못했다. 수반 논제를 받아들이면 기능적 다원주의와 충돌하고, 거부하면 자연주의의 핵심 원리를 상실한다. 그의 체계는 토대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으나,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토대론을 재구성한다. 프라이스의 주체 자연주의는 인식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려 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어디에서부터 알고 있는가”라는 오래된 물음 속으로 되돌아간다.